주기도와 십자가(V) - 뜻이 땅에서도
(마6:9~10)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주기도와 십자가 다섯 번째 시간으로 10절 하반절에 있는『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의 중요성을 진작부터 깨닫고, 깨달았기보다는 믿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의 중요성 또한 깊이깊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마음에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는 이 기도가 최고로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믿고 주기도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애썼고 또 목회를 할 때는 성도님들에게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강해를 반복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주기도와 십자가를 연결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참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느낍니다. 주기도문의 그 모든 내용이 말씀 드린 대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십자가 복음 사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모든 의미의 샘물이 주기도의 흐름을 따라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 주기도문을 단순히 강해만 하고 있을 그때에 주기도문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그리고 그 주기도문 속에 감추어진 은혜의 세계를 잘 몰랐던 거예요. 주기도문은 강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리고 예배 끝날 때에 기계적으로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자녀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우환이 생겼을 때, 경제 문제가 터졌을 때, 모든 문제들이 주어질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냥 강해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구나.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산상수훈 속에 들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늘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가 수행자들이 그 수행을 시작하는 첫 걸음으로 음식 먹는 습관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키려고 애쓰는 음식 먹는 습관이 3禁 3食입니다.

3禁이란 건 뭐냐? 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하는데 뭘 금하느냐 말입니다. 過食을 금하고, 速食을 금하고, 間食을 금합니다. 간식도 아시고, 과식도 알고, 속식? 여러분 속식 아시죠? 빨리 먹는 거 이거 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장하는 좋은 습관으로서의 3食은 뭐냐? 小食 적게 먹는 거로, 徐食 천천히 먹는 것이고, 菜食 위주의 식사입니다.

그래 주기도문을 徐食하는 거예요.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겁니다. 그냥 예배 끝날 때 한번 외우면 뭐 이거 1분이면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서식을 하면서 한 구절 구절 곰씹고 곰씹고 씹고 씹고 씹으면서 기도를 해나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까지 도달하고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두 시간도 좋고 세 시간도 좋습니다. 이 구절구절마다 한정 없이 무한대의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드디어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구절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앞에 구절에 뭐라 했냐고 하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당신이 통치를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예요.

생기는 의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삶의 현장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 즉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가 친구를 만날 때라든지 하는 모든 그런 인간관계 속에, 일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뜻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통치자의 통치권이 행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나라가 임하실 때에 이미 뜻이 다 이루어졌을 텐데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뜻을 정하신 대로 이 땅에서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뜻이 땅에

서도 이루어진 것인데 왜 또다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의 참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훑어봅니다. 처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주기도문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강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생활에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복해도 좋을 거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식모누나의 원리를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식모누나, 동네에서 개에게 쫓기고 도망 올 때에 다순이 누나~ 다순이 누나~ 하고 식모누나의 이름을 부르면 빨래방망이와 부지깽이를 들고 나와서 그 개를 향하여 질주할 때 그 개가 깨갱거리고 도망을 갑니다. 막 두드려 패면서.. 이때 내가 할 일은 개에게서 도망 오는 겁니다. 그 개가 돈 문제의 개이건, 건강 문제의 개이건, 자식 문제의 개이건,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문제, 결혼문제, 연애문제, 어떤 문제의 개이든지 간에 내 마음을 물어뜯고 걱정과 근심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모든 개로부터 도망 오는 겁니다. 그 문제를 껴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식모누나의 이름을 부르며 좇아가듯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로 도망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가기를 결정하는 것을 다윗은 구약 시편 곳곳에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신다고 노래를 하신 것이지요?

도망가기를 결정하는 거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취하는 문제 해결의 첫 걸음과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지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장소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욥의 원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거룩해지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내 마음이 아버지 이외의 것에서는 점령당하지 않고 어떤 관심사에 의해서도 선점되지 않아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 마음이 갓 태어나서 첫 번째로 만나서 아버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첫 번째로 점령되셔야 될 분이지 다른 이 세상의 문제의 관심에 어떤 욕망의 소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거룩하심에 훼손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의 '카돗' 잘라낸다는 뜻인 것처럼 마음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욥에게서 하나님이 사탄을 통하여 재산을 잘라내시고, 자녀를 잘라내시고, 아내를 잘라내시고, 친구들을 잘라내시고, 사회적인 모든 명예를 잘라내시고, 건강을 잘라내신 것처럼 몸을 잘라낸 것 아닙니까? 결국 마음에서? 그런 것처럼 다 잘라 내버리고 오직 마음 하나 동그랗

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두 번째 뜻은 여러분 뭐라구요? 지금과는 구별되는 더 좋은 상태가 거룩이고 그것과 구별되는 더 좋은 상태가 거룩이라서 더 이상은 좋은 게 없는 상태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러므로 그 더 이상은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내 마음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이 주는 행복감과는 다른 행복감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이 주는 배부름과는 다른 배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무지하게 걸려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마음에서 다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돈을 붙들고 있으면 습관적으로 죄의 습성에 따라서 내 마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배 부르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자식을 붙잡고 있으면 습관적으로 내 마음은 자식을 통해서 배 부르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 자식이면 자식, 남편과 아내면 배우자, 또 돈 문제면 돈 문제, 건강 문제면 건강 문제 다 잘라내고 온전히 깨끗해진 마음으로 보혈로 정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시간을 드리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이 없이는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는 대로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느끼시는 대로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해요.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욥의 원리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붙잡아요. 계속… 내가 자식에게서 죽었습니다, 내가 돈 문제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 세상 삶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건 내 마음을 향하여 내 스스로가 "마음아 너는 돈 문제에 대해 죽은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도 같이 죽은 거야. 마음아 자식 문제에 대해 죽은 거야. 너도 십자가에서 같이 연합해서 죽은 거야. 죽은 자가 무슨 걱정을 하냐? 이제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있는 거야.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찾아 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식후가 됐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가 돼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오기 위하여 버리고 온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들, 제가 마음으로 자식을 버렸습니다. 욥이 자식이 끊어져 나간 것처럼 마음으로 사업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내 마

음에서 하나님 내 건강문제가 끊어져 나갔고 모든 게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구절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가 통치해나가실 때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예를 들어 출애굽 후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역사를 하셨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면 안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속에 계신 아버지를 봐야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냐하면요 아버지가 이루시는 이 세상의 상황을 자꾸 보면 반드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내가 다시 이 세상의 통치자로 회복되어버리고 말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그 타락한 상태로 회복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곳에서 제가 또 단어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백합화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식모누나의 원리, 두 번째는 욥의 원리, 세 번째는 백합화의 원리. 백합화의 원리가 뭡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자, 기도하시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영광을 입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 모든 부귀영화를 동원해서 자기를 옷 입은 겁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입히셨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백합화를 보는 게 아니라 백합화 속에서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 솔로몬이 입었고, 백합화는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새 속에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활동하신 결과물들을 자꾸 눈에 보면, 반드시 그 결과물에 마음이 붙어가면서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밖에 못 이루셔?” 선악과의 기준이 동원되고 통치자의 영역으로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머슴으로 부리려 하게 됩니다. 마술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이용하게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해 가실 때 우리가 보아야 될 관전 포인트는 그 일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자. 주님이 빌라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봤듯이.

자, 이젠 오늘 좀 늦었습니다마는 뭐 어떻습니까? 기도해나가는 건데 그냥…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이 간구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처음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뭘까요? 뜻을 이룸에…

이 몸을 움직여야 될 때가 왔다 이겁니다. 이 몸을 중심으로 한 삶의 현장의 모든 구석 구석은 하나님께서 통치해나가신다. 그 이전에는 내가 마음으로 끌어당기며 책임을 느끼면서 "아이구, 이 일 때문에 바빠 가지고 저 일을 못하고 있는데 내일을 어떻게 될까?" 이랬었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제는 이 몸이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몸이 움직여야 될 때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중에 이 몸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움직여야 될 때가 오며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알려주시고 움직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야 될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다 해나가십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이 몸으로 움직여서 이루어야 될 뜻을 말한다 이겁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백 층짜리 빌딩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고층빌딩의 수주를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지… 하여간 백 층짜리 빌딩을 진다 할 때 지하 이십 층부터 지상 백 층까지 설계사가 전체를 설계하고 그 공사 감독이 설계도를 보면서 전체를 감독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 삶이 전체적으로 백 층짜리 빌딩이라고 할 때 그 백 층짜리 빌딩을 위해 감독자 되시고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관장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나는 뭐 합니까? 구십 육 층에서 벽돌을 쌓는 일을 하라 이겁니다.

뼈대를 다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 뼈대 층층마다 일군들을 둬서 벽돌을 쌓고 전기배선을 하고 문을 달고 하는데 그 구십 육 층이라고 할당되어진 곳에서 벽돌을 쌓는 일을 하라 이겁니다. 뜻이 감독에게서 이루어지고 정해진 것처럼 너는 구십 육 층에서 벽돌을 쌓는 일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무 것도 생각할 것 없어요. 내가 지금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전후좌우 향방을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심어주시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럼 그걸 따라서 그냥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움직여 가면 돼요. 그러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벽한 포인트가 내 몸을 통해서 또 채워져 나가는 겁니다. 나도 살아 있으니까 이 몸이 살아 있으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 마음은 몸을 통하여 이루어진 삶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살아 있으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구절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이요 이렇게 십자가 복음 사건과 맞아들어 가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기가 좋게 여기서도 또 하나의 원리를 제가 만들어내요. 뭐냐 하면 '전동버스의 원리'입니다.

전동버스, 밴쿠버에 있을 때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동버스였어요. 독일에 있을 때 전차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미동초등학교 서대문 앞길에도 전차가 다녔습니다. 전철이 아니라 전차… 전차건 기차건 전철이건 전부 레일 위를 달립니다.

그런데 이 전동버스는 밑에가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에는 전깃줄, 레일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기버스냐? 위에 공중에 전깃줄이 쳐져 있어서 그 전깃줄에 전기봉을 갖다 대고 버스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기봉이 주욱 주욱 늘어났다 펴졌다 하면서 약간 돌아가야 될 정도는 웬만한 차 하나는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정류장에 갖다 댈 때는 옆으로 서야 되니까 한 차선을 비껴 서서 세울 수 있을 만큼 그 전기봉이 늘어나면서 시내를 전기버스가 다녀요. 그러니까 공기가 아주 깨끗하겠지요? 오염이 덜 하겠지요?

자, 이 전동버스의 원리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얘기를 기억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기차나 전철이나 전차와 다르게 레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레일은 딴 데로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어요. 레일 위를 달려야만 됩니다.

그러나 타이어는 멋대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 위로 뛰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굳이 말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 정도 될까요? 자유의지가 물론 타락해 버렸습니다마는 나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타락한 상태의 나름대로 계획하고 소원하고 추진해나갈 수가 있고 방향을 정해 갈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예요 타이어. 레일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질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깃줄에 매여서 타이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기버스…

나는 지금 돈 문제가 있을 때 A은행을 찾아갈 수 있고 B은행을 찾아갈 수도 있고 알고 있는

동창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 문제가 처해져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늘에 전깃줄이 이미 처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전깃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타이어를 달고 있다고 아무데나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이어는 타이어지만… 그래서 자식 문제면 자식 문제대로 지금 전깃줄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움직여서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찾아내서 그 길로 가게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전동버스의 원리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부르고 하늘로 방향을 정하고 도망가 버릴 때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욥의 원리를 통해 다 끊어내고 도망가 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바라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뜻이 죽은 거예요. 뜻이 없고 계획이 없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마음이 없어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이 세상에 대해 뜻이 없어야 하나님께 뜻을 다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쓸 힘이 없어야 하나님께 힘을 다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추구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뜻이 없는 거예요.

자식 문제가 생겼으면 자식을 이렇게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아무 뜻이 없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하고 있을 그 때에 분명히 죽음이 있어야 그리고 자식으로 인해서 기쁘겠다는 아무런 바람이 없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명확하게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뜻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고백이 가능해지더라 이거예요. 그 고백이 가능해 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자꾸 내가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내 마음을 나 스스로 달래고 설득하는 겁니다.

'마음아, 너는 죽었어. 자식에 대해 걱정하냐? 너는 죽었어. 니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실 거야. 사업? 니가 걱정하니? 니가 걱정 안 해도 사업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임하실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나를 설득하고 그리고 나는 '아, 니 마음은 이제 마음아 너는 하나님만을 추구해. 하나님이 돈보다 좋다. 하나님이 자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최고시다.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다르고 좋고 다르고 좋고 다르고 좋고 좋고 해서 최고로 좋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꾸 설득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좋음을 느끼게 되고 행복하게 돼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만족될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 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주님 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지금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해서 앉아 계신 주님 말고는 아버지의 마음의 심중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실 분이 천하에 없습니다.

내 몸이 움직여질 때에 내 뜻은 이미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아버지께로 다 가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달래서 자꾸 아버지께로 보내야 돼요. 내 뜻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 몸 안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해나가시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자판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자판이 있는데 그 자판 맨 아래 부분에 단추 하나가 한/영 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한글 타자가 되고 또 누르면 영어 타자가 됩니다. 이걸 모드전환이라고 그래요. 한글 모드로 전환하고 영어 모드로 전환합니다. 단추 하나 눌러대는데 수십 개의 단추 모두가 다 영어가 나오고 단추 하나 누르는데 수십 개의 단추가 다 한글로 나옵니다. 이상하지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죽게 됐는데 갑자기 이 세상 전체가 천국의 모드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간섭하시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을 큰일에서 사소한 일에까지 다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망각되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잠간 잊어버리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하면 갑자기 전체가 다 내 책임 하에 들어와 버립니다. 내가 수고하고 짐 지고 내가 끌고 가야 될 일로 다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세상 전체가 내가 통치자인 나라로 모드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면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모드가 바뀝니다. 천국 모드로 바뀌어버립니다. 아!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천국 모드로 바뀌어서 하나님으로 배불러 감사하며 있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인데?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나의 삶을 위하여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뜻을 주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주님만이 정확하게 아시고 주님만이 완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 죄악 때문에 징벌을 내리셔야 될 모든 것들은 다 빨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통만 남았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 아닙니까? 우리 삶에 모

두 형통이에요. 돈이 안 벌려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통입니다.

몸이 좀 아프지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됐다고 그러지요? 아니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형통하는 겁니다. 형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저주와 심판은 주님이 다 빨아들이셨고 이제 이 몸이 움직여져야 될 뜻이 있다 그럴 때에 그 뜻을 아버지 마음속에서 캐치해서 성령님을 통해 내 속에 집어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면서 움직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 언제나 전동버스의 원리, 그 그림을 그리세요. 전깃줄이 이렇게 있고 전기봉에 달려 있는 버스가 밑에는 타이어라서 제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제 마음대로 가기를 포기하고 전깃줄을 따라간다. 아, 분명히 지금 당면한 이 문제와 이 순간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깃줄을 그어 놓으셨다. 전깃줄을 하늘에 긋지 않은 채로 이 땅의 삶이 하루라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여러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될 전깃줄을 그어 놓으신 상태에서만 우리의 하루가 주어져 있고 진행되어져 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구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사시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어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나라가 임하옵시며'까지의 기도의 내용이 충족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도 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내가 마음으로 잊고 있을 때라도 아버지는 잊지 아니하시고 다 통치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 몸이 움직여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줄 아오니 그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 몸이 가야 될 길을 전깃줄로 쳐놓으셨으니 아버지의 뜻의 전깃줄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제 꿈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찾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만이 아버지의 뜻의 전깃줄만이 이 몸이 가야 하고 행동해야 될 유일한 길로서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 되어 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도망갑시다. 식모누나의 원리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욥의 원리로 마음에서 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끊어냅니다. 그리고 거룩히 여김, 그 거룩함에 참여해서 행복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움직이시는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작은 일에서건 큰일에서건 일 자체를 보지 마시고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백합화의 원리로 기도하세요. 백합화를 보라. 아버지가 입히셨다. 아버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전동버스의 원리로 나도 생각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이 몸이 움직여야 될 길을 전깃줄로 뜻을 전깃줄로 쳐놓듯이 이미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래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가는 겁니다. 내가 발 달려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쳐놓으신 전깃줄에 닿을 때 뜻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깃줄로부터 힘이 옵니다. 전깃줄을 따라갈 때에 전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쳐놓으신 전깃줄을 따라 행동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부터 힘도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이 움직여야 될 길을 위하여 쳐놓으신 전깃줄을 따라 가시는 동안에 하늘의 힘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동버스의 원리를 따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